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각 작품으로 표현된
일상사물에 관한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이 지 애

조각 작품으로 표현된
일상 사물에 관한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노 주 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이 지 애

인 준 서

이지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2010년 석사학위 청구 전에서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형성 배경과 표현 방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예술이란 항상 실제로 존재하는 일상 사물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사물에 대해 경험하는 방식과도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체험되는 많은 경험에 의해 감정을 가지게 되고 느껴지는 것을 표현하며 살아간다. 일상에서 가지게 되는 감정과 경험, 추억들은 작업하는 작가에게 있어서 주제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일상성의 특성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일상 공간이다. 이렇게 예술은 일상의 삶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은 소비문화의 확산과 현대사회의 발전에 의한 물질 풍요현상으로 많은 사물이 주변에 넘쳐났다. 그로인해 자연스럽게 일상 일부가 되어버린 사물과 그것들이 만나 이루어낸 공간은 기능과 역할의 본질적인 이미지로 고정되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물의 정체성을 변화시킨 본인의 작품을 통해서 고정된 사물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을 연구 목적 및 방법을 서술하였고 제2장 본론에서는 일상 공간의 의미와 방에 내재한 감정에 대해 서술하였고 이러한 감정이 일상 사물에서 유발되는 것을 밝혔다. 표현 방법에서는 미장센으로서

설치방법과 재료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작품 5점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정리하고, 본인 작업의 문제점과 앞으로 더욱 연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 형성 배경	
1) 일상 공간으로서의 방	3
2) 일상 사물	6
2. 작품 표현 방법	
1) 재료에 따른 표현	8
2) 미장센의 설치표현	9
3. 작품분석	11
III. 결론	25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아름다움을 주는 것들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0	11
【작품2】 기다림과 설레임을 주는 것들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0	14
【작품3】 편리함을 주는 것들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0	17
【작품4】 추억을 주는 것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0	19
【작품5】 나를 위한 도구들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0	22

I. 서론

예술은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이러한 일상 삶의 경험에 의해 표현된 작가의 작품은 예술을 위한 자서전과도 같다. 경험은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여러 요소인 사물과 함께 어우러져 작품 속에서 하나의 내러티브¹⁾를 구성한다.

본인의 작업은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 중에서 가장 은밀하면서도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인 방과 그 속에 배치된 사물의 경험에 의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에 본 논문은 작품 분석에 앞서 일상공간의 의미와 그에 따른 일상공간인 방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서술하였고 본인은 방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사물에 의해 내재한 기억과 경험을 유발하게 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사물의 고정된 이미지를 작품으로 재탄생된 사물을 통해 벗기고자 하였다. 또한, 작품을 새로운 공간에 구성함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연상과 내재하여 있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시각적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소통의 수단이 목적이다.

1) 내러티브(narrative)란 실제 혹은 허구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것 또는 기술(writing)이라는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이야기적인 성격을 지칭하는 말.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과관계로 엮어진 실제 혹은 허구적 사건들의 연결을 의미하며 문학이나 연극, 영화와 같은 예술 텍스트에서는 이야기를 조직하고 전개하기 위해 동원되는 다양한 전략, 관습, 코드, 형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내러티브는 관객들에게 펼쳐지는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측하게 해준다. 그럼으로써 어떤 사건이나 감정의 발생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개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본인 작품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본인 작품의 의도와 재료적인 측면, 기법 등의 연구 과정을 밝혀 본인의 작업의 발전적인 작업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작품 형성 배경

1) 일상 공간으로서의 방

인간은 공간으로부터 출발하여 공간으로 회기 하는 존재이듯 인간은 공간 속에서 존재하며 반복적이면서도 많은 변화가 없는 그 안에서 우리의 일상은 늘 일어나고 있다.

일상 공간이라는 곳은 문자 그대로 늘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하루를 뜻하는 일상²⁾의 공간이다.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 씻고 화장을 하며 옷을 차려입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위하여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듯이 반복적이며 연속적인 공간이다. 일상 공간은 일상성의 특성을 가장 가깝게 느끼게 하는 동시에 몸으로 직접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그 중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은밀한 공간으로서 자신을 잘 들어낼 수 있는 방이라는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다. 방은 핵가족화의 현상으로 가족의 구성원이 축소됨에 따라 개인 존중의 생각이 높아지고 생활양식과 함께 집의 구조도 변화하여 한 채의 집 속에 독립된 개인 공간의 방이 만들

2) '일상'이란 무엇을 의미 하는가? 한스페테 투른 (H. P. Thurn)에 의하면, 어원학적으로 볼 때 '일상'(Alltag)이란 개념은 그리스어 '카테메란'(Catemeran)과 라틴어 '코티디아누스'(Cotidianus)로 부터 유래하는데, 그 뜻은 매일 '반복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문의 '日常'(일상), 늘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하루하루란 뜻과 일맥상통한다.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 사랑, 2000, p.171

어지게 됨으로써 방의 역할도 커졌다. 본인은 이러한 방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사물과 사물들이 만나 이루어낸 장소로 바라보며 공간적인 인식을 본인의 시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방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 잡기도 한다.³⁾ 그곳에서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취향과 습관 그리고 성격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경험과 사유가 만들어지는 장소이며 또한 본인의 작업의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본인은 방 속에 본인만이 가진 생각과 감정을 담고자 하였고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은 방 속에 배치된 사물에서 유발된다. 즉 자신만의 공간인 방에서 특정한 사물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내면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며, 그 결과 내부에 간직되어 있던 추억과 감정들의 이미지들이 작업의 꼬리를 물게 했고 현실에 간혀 보지 못했던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제시하는 다양한 표현이 되도록 이끌어 준다.

본인의 일상적 공간으로서 바라본 방에 내재한 감정은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로 순수감정⁴⁾이다. 사람들은 인간관계, 사회생활 등을 하면서 남의 이목 때문에 본인의 생각,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가식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인 방에서만큼은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은 누군가 듣지도 보지도 않는 방안의 침대에 누워서 통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았을 때 그때그때 느껴지는 감정과 말들을 표현

3) 이-푸 투안 저, 구동희,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1995, p.63

4) 모든 경험적 내용에 좌우되지 아니하며 ‘의식의 근원’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미적 내용을 생산하는 선형적인 감정

하게 된다. 본인이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순수감정은 이처럼 순수한 본연의 모습이 의식의 근원에서 나타내어지는 모습을 찾고자 한 것이다.

둘째는 순수감정과 반대인 욕망의 감정이다. 라캉(Jacques Lacan)⁵⁾은 욕망이란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욕망의 사전적 의미는 부족을 느끼며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는 것이다. 본인 또한 아름다워지기 위해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려 한다. 이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꾸며 줄 수 있는 사물들을 취득, 수집하여 그것을 이용해 그 욕구를 채우려 한다. 그것은 모든 생물에서 제거되어서는 안 되고 제거할 수도 없는 근본적인 본능인 것이다.⁶⁾

셋째는 휴식과 같은 안정감이다. 이 감정은 방에 배치된 소파, 침대, 의자, 휴대전화 등 이러한 사물들을 통해서 익숙함과 편리함을 느껴지게 된다.

인간의 삶은 피난처와 모험 그리고 애착과 자유 사이의 변증법적인 움직임이다.⁷⁾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피난처와 같은 방으로 이끌고 들어와 그 속에 놓여 있는 사물들을 바라보고 만짐으로써 또는 사용함으로써 마음의 안식을 가지면서 하루의 노곤함을 푼다. 익숙하다는 것은 편안하고 친숙하면서도 습관적으로 대하기 쉬어 때때로는 그 의미와 중요성까지도 잊어버리게 한다.

이처럼 일상공간인 방안에서의 경험과 그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들은 개별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나의

5)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 프랑스의 철학자·정신분석학자. 언어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분석하는 이론을 정립하여 '프로이트의 계승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6) 최광진, 〈부드러운 욕망〉, 서울:다빈치, 2004, p.8

7) 이-푸 투안 저, 구동희,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1995, p.69

예술 작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작가에게 있어서 작품은 스스로가 추구하여 찾고자 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도구가 된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작품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으며,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⁸⁾

2) 일상 사물

우리의 삶은 현대사회의 발전에 의한 물질 풍요현상으로 많은 사물로 가득해졌다. 현대사회 속의 사물은 인간이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적인 것 모두를 가리킨다. 즉 만들어진 모든 것을 가리킨다.⁹⁾ 그로 인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일상 일부가 되어버린 사물들의 이미지는 미적 대상으로 보이기보다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생산되어 기능과 역할에 맞는 관념적, 본질적인 인식으로 고정되어 왔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느 한순간에도 사물과 떨어져 생활하는 시간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도구나 지니고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그 이상의 대상으로는 의식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나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물인 볼펜은 문화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사물로서 단순한 형태로 기호화된 이미지로만 인식될 뿐 그 이상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물이지만 어

8) 장혁살튀모, 김현수 역, <미술의 읽기>, 미진사, 1996, p.34

9) 아브라함 몰르, 엄광현 역, <키치란 무엇인가?>, 시각과 언어, 1995, p.37

쩌면 이러한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 같다.

본인은 이런 이유에서 사물들을 선택하여 작품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용도와 기능적인 면으로만 고정된 이미지를 벗기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업을 위해 선택되어진 사물들은 방안에 소유된 펜, 안경, 빗, 손톱깎이 등 생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일상적 사물들이다. 또한 공간은 놓인 사물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선택한 일상적 사물들은 방이라는 공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선택되어진 사물이다. 일상적 사물들은 개인적으로 경험되고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본인의 추억과 감정 그리고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모습, 성격을 대변하는 새로운 의미의 오브제로 표출되었다. 오브제는 예술적인 어떤 것을 넘어선 모든 사물을 차용할 수 있으며, 차용한 사물에 대한 예술적 전용을 가능케 한다. 여기서 사물에 대한 예술적 전용이란 예술이라는 계기에 의해 사물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술이란 항상 실제로 존재하는 일상 사물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사물에 대해 경험하는 방식과도 관련되어있다.¹⁰⁾

이렇듯 본인의 사물에 대한 이야기는 고정된 사물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사물들을 선택하여 사물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거기서 유발되는 내재한 추억과 감정들을 끌어내는 사물로 변형시키고자 한 것이다. 또한, 변화된 일상사물에 의해 관람객들도 자유로운 연상과 잠재된 욕망이나 추억,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H.W 쟈슨, A.F 쟈슨, 최기득 역, <서양미술사>, 미진사, 2008, p.13

2. 작품 표현 방법

1) 재료에 따른 표현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어 당연스럽게 여겨져 왔던 것들의 정체성 변화를 피하고자 한 작업에서 사용된 재료에는 나무와 스티로폼이 사용되었다. 대상이 되는 사물을 구성하는 재료와 사물의 형태를 변형시켜 표현한 것은 사물의 또 다른 시각적 체험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로서 사물을 표현함으로써 기능성과 역할은 사라지고 본래의 순수한 형태만 남게 된다.

산업화한 시대의 발달로 많은 사물이 넘쳐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얻게 된 것은 위에서 많이 언급했듯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산물 중의 하나인 스티로폼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었다.

우리의 머릿속에 고정된 스티로폼의 이미지는 한낱 처치 곤란한 산업 쓰레기와 같고 몸에 해로운 물질로 인식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스티로폼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방안의 내부에는 이것들이 내장되어 있어 체온을 유지하게 시켜주고 소음 그리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산물 중 하나이다. 본인은 이러한 점에서 스티로폼이 주는 폭신함과 따듯함, 그리고 손대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아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빌려 침대, 화장대, 책상 등의 사물을 본인의 방에 실존하는 형상 그대로 깎아내고 필요 없는 부분만큼 잘라내는 형식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물은 즉 가구들의 단단하고 움

직이지 않는 외형적인 이미지와 기능을 없애기 위함이다. 또한, 작품의 마감에 있어서의 어떠한 코팅과 색을 입히지 않고 스티로폼이 가지고 있는 따듯하면서도 차가운 고유한 본연의 색인 백색만을 남겨두었다. 이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색을 없애고 만들어진 사물 자체의 공간감과 형태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본인 작업에서 선택된 손톱깎이, 안경, 펜, 면도기 등의 사물들은 대량생산되어 나온 인공적인 것으로써 대부분이 플라스틱, 금속재질로 매끈하고 반짝거리는 딱딱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차갑고 인위적인 느낌을 없애기 위하여 따듯하고 친숙한 느낌을 주는 자연물 중의 하나인 나무를 이용하여 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사물들은 존재하고 있는 일상적 기능이 본인의 작업인 사물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재탄생됨으로써 사물의 근본적인 이미지를 벗기고자 하였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또 다른 시각적인 체험을 가능케 한다.

2) 미장센의 설치 표현

미장센(Mise-en-scene)은 연극연출가가 무대 위의 모든 시각적 요소들을 배열하는 행위인 장면화(putting into the scene)라는 뜻의 프랑스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본래 연극의 용어인 ‘장면의 무대화’에서 비롯해 일반화되었다. 즉 미장센이란 한 공간 속에 담기는 이미지의 모든 구성요소들에 의해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작가의 작업을 가리킨다. 본인의 미장센으로서는 자신의 본연의 모습, 욕망, 안정감 등의 감정을 보여줄 수 있

는 방이라는 무대 위에 놓여 있는 일상의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해 변화된 사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공간에 배치하는 설치 작업이다. 즉 본인의 주관에 의해 배치된 작품, 예를 들면 꾸며줄 수 있는 사물과 그 행함을 있게 해줄 화장대라는 공간에 배치해 본인의 주제가 드러남에 있다. 또한, 관람객은 내재되어 있던 감정과 어떠한 사건의 이야깃거리를 이러한 미장센을 통해 현실과 동일화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적인 요소들인 사물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어떤 색을 띠며,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람객의 정서에는 상반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 결과 미장센이 설치 공간에 단독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이 작품을 통해 서로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이 유추되었고 또한 미장센은 그 공간의 내부에서 보이는 사물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의미를 취하고, 사물과 사물들의 관계는 관람자로 하여금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구성된 공간은 마치 연극무대처럼 어떠한 면에서는 낯설기도 하지만 실제공간과 사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재배치를 통해 관람자로 하여금 실제공간에 내재되었던 감정 또는 경험에 의한 이야기를 시각적인 환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본래의 실제모습을 추측하고 고정된 이미지를 확장된 공간으로 체험하도록 하였다.

3. 작품 분석



【작품1】 아름다움을 주는 것들,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0

【작품1】 아름다움을 주는 것들

연도: 2010년

크기: 가변설치

재료: 혼합재료

제작 방법

가구를 표현한 스티로폼 작품은 슬라이덱스에 열선을 연결하여 드로잉 되어 있는 스티로폼에 열을 이용하여 재단한 다음 사포로 마무리 하여 스티로폼 전용접착제로 접착 하였다.

도구를 표현한 나무 작품들은 크기에 알맞게 재단한 다음 핸드밀러를 이용하여 모양에 맞게 형상화해 나아가며 사포를 사용하여 마무리 한 다음 나무와 나무의 결합을 위해서 나무들 사이에 구멍을 뚫어 고정될 수 있게 나무 편을 박아 목공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하였다.

작품 설명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자연스럽게 화장대에 앉아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며 일상의 하루가 시작됨을 알린다.

앞서 설명한 일상 공간인 방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순수감정이 방이라는 장소에 들어왔을 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가도 화장대라는 공간 앞에 앉게 되면 그 위에 놓인 사물을 사용하여 화장하며 꾸며주는 행위는 그 모

습을 감추기 위함이며 또한 욕망이라는 감정과 대립하는 공간이다. 그것은 외모지상주의의 삶을 사는 우리의 현시대의 여자로 태어나서 아름다움에 갈망하는 욕구는 본능인 것이다. 본인도 아름다워지기를 갈망하며 외모에 많은 시경을 쓰지만, 밖에서의 비치는 본인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감춰지기를 바라며 이 공간 안에서만 보이는 솔직한 본인의 모습이다.

작품을 표현하는 데 있어 잘린 형태는 화장대의 기능과 역할을 없애기 위함이며 드라이기, 빗 등 사물은 재료가주는 인공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 나무로 제작됐다.



【작품2】 기다림과 설레임을 주는 것들,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0

【작품2】 기다림과 설레임을 주는 것들

연도: 2010

크기: 가변설치

재료: 혼합재료

제작 방법

앞의 방법과 동일함

작품 설명

현대인에게 있어서 필수품이 되어 버린 휴대전화는 많은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으며 많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이다. 본인은 침대에 누워서 통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방문이 닫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나의 방에서 말이다. 이상하게도 남의 이목을 신경 쓰는 성격 탓과 평소에 쿨 한 척 하고 애교 없는 사람으로 통해 있는 본인의 모습을 연인과의 통화에서의 다른 나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인 것 같다. 아무도 보지도, 듣지도 않는 자신의 방에서는 혹여나 남이 들을까, 하지 못했던 말들과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다. 화장대의 공간이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면 침대의 공간은 하루의 마무리를 뜻한다. 작품 표현에서는 따뜻하고 폭신함 그리고 그날그날 있었던 나의 고민과 실수를 흡수해줄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스테로폼의 성질을 빌려 표현하였다.



【작품3】 편리함을 주는 것들,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0

【작품3】 편리함을 주는 것들

연도: 2010

크기: 가변설치

재료: 혼합재료

제작 방법

앞의 방법과 동일함

작품 설명

작품으로 표현된 저 책상은 나에게 있어서 생애 처음으로 가져본 책상이다. 그 당시에 나에게 책상의 용도는 앉아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 방의 더러움을 은폐하기 위해 물건들을 모두 책상 안에 넣어 저 책상의 기능 중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나의 방을 깨끗하게 보이려 하던 용도임을 떠올릴 수 있었다. 본인을 이렇게 사물을 통해 내재한 추억을 들춰 볼 수 있었고 책상을 자른 형태를 취하는 것은 이전 책상의 기능을 없애기 위함이며 그 위에 놓인 사물은 나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으로 대량생산품으로써 느껴지는 질감은 차갑고, 매끄러운 인공적인 느낌에서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들 수 있도록 변화시킴으로써 재질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새로운 인식을 부여했다.



【작품4】 추억을 주는 것 ,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0

【작품4】 추억을 주는 것

연도: 2010

크기: 가변설치

재료: 혼합재료

제작 방법

앞의 방법과 동일함

작품 설명

성장 과정과 변화된 모습을 형상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사진이다. 과거의 사진들을 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돌아가 보며 추억하게 되는데 본인에게는 한 가지 취약점이 있다.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과의 만남 여행에서 찍게 된 사진들을 메모리에 남겨 놓고 컴퓨터에 옮기지 않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선 본인이 찍은 사진들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그래서 본인의 디지털 카메라의 메모리는 항상 꽉 차있어 용량이 커야 한다. 막상 사진을 찍으려 할 때는 차있는 사진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는 습관과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통해 예전의 기억들을 되살려 보는 시간이 된다. 또한 의자 위에 사물을 올려 배치한 미장센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을 담기 위해 또는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온 지친 일상의 삶에 휴식을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품5】 나를 위한 도구들

연도: 2010

크기: 가변설치

재료: 혼합재료

제작 방법

앞의 방법과 동일함

작품 설명

인간은 편리해지기 위해 또는 필요에 의하여 우리 주변에는 인공적인 사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대량생산되어 나오게 된 것을 수집하여 내방 어느 한 구석구석에 놓이게 된다.

문득 어지럽혀진 본인의 방을 둘러보며 정리를 시작한다. 한 곳 한 곳 치우며 흩어진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야 하지만 막상 어떠한 물건을 버리려 하다가도 사물과의 있었던 기억들은 되짚어 보면 결국 버리지 못하고 다시 어딘가 구석 한쪽에 놓게 된다.

방이라는 장소에서는 사람의 성격 또는 습관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본인의 어지럽혀진 방을 둘러보며 그 습관들은 사물에 의해 유발된 것을 보았다. 본인의 방에는 수 십 종의 펜과 립스틱이 굴러다닌다. 쓰

지도 읽으면서 그것들과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보며 언젠가는 다시 쓰겠지 하는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다른 곳 어딘가에 놓게 되는 나의 습관을 보게 되었다.

Ⅲ. 결 론

일상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특성에 의해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일상적인 것들이야말로 바로 우리 옆에서 보고 접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하고도 친숙한 소재이다. 작가에게 있어서 작업을 통하여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본인은 일상 공간으로부터 찾으려 했고 그 공간은 가장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이라는 장소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들과 겪게 되는 수많은 경험, 이야깃거리들은 사물에 의해 유발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물의 표현에 있어 일상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자연적인 나무를 사용하여 대량생산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인공적인 느낌을 없애고자 하였으며 스티로폼으로 표현된 사물은 본래의 기능성과 역할을 없애고자 사물의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는 조형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사물의 고정된 이미지를 벗기고자 한 것이다. 또한, 미장센을 활용하여 설치된 작품은 감상자들에게 사물의 새로운 시각과 일상의 동일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바라본 본인의 작품들은 의도한 바와 달리 그 표현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상이라는 주제는 관람객과 소통하였고 본인이 의미하고자 했던 사물들은 재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형적인 측면에서도 그 표현방법이 만족한다고 사료된다. 그

러나 앞으로의 작업에서는 사물에 대한 본질의 특성을 조형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꾸준한 성찰과 모색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작업을 하는 진정한 작가로서의 모습을 찾는 것이 작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최광진, <부드러운 욕망>, 서울 다빈치, 2004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 사랑, 2000

Abraham Moles, <키치란 무엇인가?>, 엄광현 옮김, 시각과 언어, 1995

H.W Janson, A.F Janson, <서양미술사>, 최기득 옮김, 미진사, 2008

Jean Luc Chalumeau, <미술의 읽기>, 김현수 옮김, 미진사, 1996

Yi-Fu Tuan, <공간과 장소>, 구동희, 심승희 옮김, 도서출판 대운, 1995

ABSTRACT

A study of representation of sculpture artwork on
Daily Object
- The case of my own works -

Ji-ae Lee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presented future work by analyzing background of creating artwork and mode of representation centering on my artworks that were presented before applying 2010 master's degree.

Art is not only related to daily Object that actually exist but also a way that people experience over everyday things. People feel emotion by experience they have in everyday life and express it. Feeling, experience and memory that are obtained from everyday life become important factors when artists seek a theme. Art reflects everyday life. The expansion of consumption oriented culture and

rapid economic development produced countless things around us and therefore it became difficult to see space from different viewpoint because things that became a part of everyday life and space that things make became fixed as essential image of function and role. In this regard, I tried escaping from fixed image of things by attempting to create work that identity of things are changed.

The organization of this thesis is as follows. In chapter 1 which is introduction , the objectives and methods of study were described. In chapter 2 which is body, the meaning of everyday space and emotion that dwells in room were described and how emotion was caused by everyday things was examined. Mounting method as Mise-en-scene and materials were analyzed with regard to mode of representation. My five artworks were examined respectively. In chapter 3 which is conclusion, the contents of this thesis were summarized and problems with my artworks and future study were presented.